



암! “조기발견하면 살 수 있습니다!” - 자궁경부암

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결과 자궁암 유소견 현황(1999년 11월 중)

암 검진인원	지 부 별	자궁암 유소견자(66명)	자궁암 확진자(21명)
21,848명	서울	4명	-
	부산	1명	-
	대구	3명	-
	인천	2명	2명
	대전·충남	11명	6명
	광주·전남	12명	2명
	경북	22명	11명
	경남	11명	-

◎ 자궁암 조기 발견 사례

건협 대구지부에서 성인병검진을 받은 김○○씨는 자궁암 유소견 판정을 받은 후 파티마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유전자 변형으로 확인되어 3개월후 재검을 받기로 했으며, 경북지부에서 검진을 받은 이○○씨는 자궁암 확진 후 경북대병원에서 자궁암 수술을 받았다.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건협 각 시도지부 종합검진에서 자궁암 유소견 판정을 받은 후 종합병원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있다.



◀18

◎ 자궁암이란

- 우리 나라 여성암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자궁암인데 그중 경부암이 97%정도 된다.
- 자궁경부암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, 위생 상태가 나쁜 사회 계층의 여성, 첫 성경험 연령이 낮은 여성, 성 경험이 많거나 매독 등 성병을 앓았던 여성, 다산(多産)을 한 여성 가운데 많이 발생한다.
- 자궁경부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, 상피내암의 경우도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80% 이상이나 된다.
- 따라서 하복통·요통·성교 시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때는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경우가 대부분이다.
- 자궁암은 조기에 발견만 되면 암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거의 완치가 가능한 질병 중의 하나지만, 주변 장기로 퍼지기 시작하면 그 예후가 나쁠 수 있으므로 매년 정기적인 암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.

“자궁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100% 완치가 가능하지만, 주변 장기로 퍼지기 시작하면 그 예후가 나쁜암이다. 따라서 기혼 여성들은 1년에 한번씩 꼭 자궁 세포진 검사를 받아야 한다.”